

칼럼 Column

화합과 도약을 이루는 한 해

지난 2월 19일 대한출판문화협회 제61차 총회에서 회장직을 맡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한편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또한 우리 출판계는 여러 가지 현안들을 가지고 있기에 망설이고 주저할 여유를 부릴 상황이 아니므로 서둘러 제가 가진 역량을 백분 발휘하여 일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1947년 설립 이래 지금까지 출업을 이끌어오신 회장님들과 출판인들이 쌓아온 업적을 토대로 하여 재임기간 동안 우리 출판계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의 해결을 통해 출판사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출판계가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도서정가제의 유지, 저작권법 개정 추진 등을 통한 출판유통 질서 및 법제 확립을 비롯하여 2008 국제출판협회(IPA) 서울총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새로 구성된 임원진과 힘을 합쳐 다음과 같은 사업들을 중점적으로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출판계 화합과 실질적인 출판정책의 수립

공약사항에서 밝힌 것처럼 협회에 상근함으로써 전반적인 업무과약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일이 진행되도록 방향을 잡아나갈 것이며, 출판계의 현안문제 대두 시 회원들의 증지를 모아 차근차근 해결해 나감으로써 회원사의 권익을 대변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나아가 이해관계가 달라 화합하지 못했던 출판계를 비롯 관련단체와도 과거보다는 현재의 공통의 이해관계를 모색함으로써 화합을 통해 하나 되는 출판계가 되도록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 출판계 발전을 저해하는 고질적인 문제이지

만 꼭 해결해야 할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안의 도서정가제가 앞으로도 확실히 유지되도록 할 것입니다. 동법이 올해 1월 개정 시행된 후, 법에서 정한 원칙을 지키지 않아 출판 및 유통업계 간의 불협화음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업계간 자율적인 합의기구를 설치하여 법에서 정하지 못한 세부 사항에 대해 상호합의 규약을 마련, 건전한 출판유통 질서를 뿌리내림으로써 한국 출판유통의 모순을 개선해 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나아가 「출판문화산업진흥법」을 실용적으로 활용하고 우수학술도서 지원금 증액, 국제도서전 지원 확대, 우수도서 제작 및 선정 지원, 도서관 도서구입비 증액 등 정부의 문화예산 확보를 통해 보다 출판계 지지기반을 확고히 할 수 있는 다양한 출판지원 대책을 확충하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2007년 7월부터 시행된 저작권법 전면개정 및 한미 FTA에 따른 저작권법 개정을 통해 불 때 출판권의 법적 위상이 축소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에 향후 저작권법 개정 시에는 판매용 도서에 대한 대여권, 저작인접권으로서의 판면권, 사적복제보상금제도 도입, 출판의 정의에 디지털 출판물에 대한 조항 마련 등 출판권자의 권리와 보호를 위한 방향으로 개정해 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국제출판협회(IPA) 서울총회, 문화선진국가로 도약할 절호의 기회

이와 함께 국제출판협회 가입한 지 반세기 만에, 그리고 지난 2004년 총회 개최국가로 선정된 지 4년 만에, 출판인들이 총력을 기울여 준비해 온, 출판인들의 문화 올림픽이



백 석 기
대한출판문화협회 회장

라 할 국제출판협회 서울총회가 드디어 오는 5월 12일부터 15일까지 “책의 길, 공존의 길”이라는 슬로건 아래 오랜 문화와 전통을 간직한 서울 일대에서 펼쳐집니다.

한국출판의 저력과 위상을 보여주게 될 IPA 서울총회는 전 세계 70여 개 국가의 출판인 및 지식인이 모인 가운데 ‘새로운 역할’, ‘새로운 도전’, ‘새로운 길’이라는 대주제 아래 24개 포럼을 통해 각국의 출판계 현안과 현황에 대한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세계 출판 산업 발전을 위한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해 보고, 한국 출판의 비전을 제시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문화가 국가 경쟁력의 바로미터인 오늘날, 서울총회의 성공적 개최를 통해 세계에 한국을 알리고, 우리 출판문화의 모든 것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기회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또다시 언제 올지 모르는 이 기회를 잘 살려 출판계를 보다 성숙하게 하고, 문화강국이자 문화선진국가로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지난 1996년 출협 부회장과 IPA 저작권위원으로 일할 당시 IPA 서울총회를 유치하는 데 일조를 담당한 계가 이제 그 결실을 맺는 자리에 함께하게 됨에 남다른 의미를 느끼며, 현 집행조직 및 계획을 존중하는 가운데 제가 가진 국제적 경험을 활용하여 문화로 출판인과 국민이 하나 되는 행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도서관계와 출판계의 상생을 통한 독서인구 창출
한편 출판계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는 도서관

계와도 서로 상생할 수 있는 환경마련이 필요하다 생각됩니다. 우선 인구수에 비해 턱없이 적은 도서관이 증설되어야 할 것이며, 도서관이 출판시장의 큰 구매자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선진국의 경우처럼, 공공도서관 전체 예산의 10% 정도인 도서관입비의 대폭적인 증액으로 출판사에서 발간한 양질의 도서에 대한 소비를 통해 출판계의 안정적인 지지 기반으로서 도서관이 자리잡을 수 있기를, 나아가 독서인구 창출에도 기여하기를 희망합니다. 이의 연장선상으로 도서관 납품제도 개선 및 우수도서 납품 확대에도 도서관계와 뜻을 조율함으로써 서로 윈윈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상호 성장할 수 있는 협력체계가 더욱 공고해지기를 희망합니다.

이처럼 안으로는 출협을 대 회원사 중심의 생동하는 조직으로 만들고, 출판계의 화합을 통해 출판산업 정책을 수립함으로써 출판사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출판인들이 자긍심을 갖고 일할 수 있는 출판환경을 조성하며, 밖으로는 국제출판협회 총회의 성공적 개최를 통해 문화선진국가로 도약할 수 있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한 해가 되도록 열심히 뛰겠습니다. 또한 지금껏 그래왔던 것처럼 어려운 난관에 부딪혔을 때는 책에서 얻은 지혜인 정도(正道)를 걸으며 문제를 슬기롭게 헤쳐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목전에 다가온 국제출판협회 총회의 성공적 개최에 한국도서관협회에서도 많이 응원해 주시고 힘을 실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인)